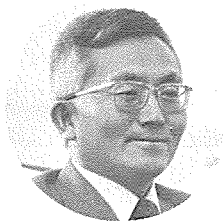


擇理志를 남긴

李重煥

立体的  
정보  
地理學  
착안



朴星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를 만든 사람을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金正浩를 꼽기 쉬울 것이다. 그만큼 그의 「대동여지도」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모양을 종이 위에 옮겨 준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지도가 정확하다 해도 지도만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있는 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도에는 우리가 살고있는 땅에 대한 평면적인 정보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어서 보다 입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우리 조상을 묻을 묘소를 마련할 때에는 각별하게 둘레의 산 모양도 더욱 살펴 보고 물이 흐르는 모양도 관찰하고, 또 그밖의 여러 조건을 살피기 마련이다. 이런 관심이 지나쳐서 어떤 체계적 이론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에도 풍부했던 풍수지리설이 될 것이다. 극단적인 풍수지리설이 미신인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새로운 방향의 地理學에 관심

擇理志라는 특이한 지리학 책을 후세에 남겨 유명한 李重煥(1690-1756)은 바로 전통적인 풍수지리설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리학의 길로 돌아들기 시작한 우리나라 근대 지리학의 개척자로 꼽을 수 있는 선각자였다. 이중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1690년, 즉 숙종 16년에 李震休의 아들로 태어났고 1713년에는 증광별시에 합격하여 벼슬 길에 들어갔다. 金泉 찰방, 주서, 지평 등을 거쳐 兵曹 正郎까지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號를 淸潭 또는 靑華山人이라 했고, 字는 輝祖였다.

그가 37살 때에 辛丑, 壬寅의 사화가 일어났다. 소론이 노론을 고발한 1721-1722년의 사화를 말한다. 그의 장인이 여기 연루되었던 관계로 이중환도 1926년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의 공직생활은 이로서 끝을 맺는다. 그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 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 연구의

날을 보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는 하지만 「택리지」이외에는 그의 저술로 알려진 것은 없다. 이 책은 1751년 또는 1752년 즈음 완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확실치 않다. 또 이 책에는 원래 이중환이 이름을 붙여 준 것이 아니었던 듯, 수많은 이름이 전해져 온다.

지도 말고도 수많은 地志가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예를 들면 「세종 실록」에는 “지리지”가 덧붙여져 있고, 「東國輿地勝覽」같은 책은 조선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지리적인 특징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기록돼 있고 그 지역 출신의 유명한 학자도 소개 되었으며, 각 지역이 고적까지도 소개되어 있다.

맹자는 정치에 필요한 것으로 天時, 地利, 人和의 셋을 든 일이 있다. 이런 지리지등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관심이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 ◇全國土에 대한 評衡 작업 시도

그런 조건 속에 살고있던 이중환은 지도 또는 지리지가 다루지 않는 어떤 것을 정리해 보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다. 어차피 한 사람의 개인 이 중환으로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수정할 정도로 새로운 조사를 해 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가 시도한 작업은 이미 다른 책에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골라 그를 바탕으로 전에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전국토에 대한 평가작업을 해보려했던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곳이 살기 좋으며, 어느

그가 시도한 작업은 이미 다른 책에 있는 자료들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골라 그를 바탕으로 전에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전국토에 대한 평가작업을 해 보려했던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들 四民 가운데 특히 지배계층인 사대부, 즉 양반계층의 “살 만한 곳”(可居地)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중환이 살고있던 시대의 형편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곳이 살기 나쁜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밝혀 주려는 일이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 조건과 자연적 조건등 아주 합리적인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적인 조건도 상당히 가미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한계성을 들어내 주는 것도 사실이다.

#### ◇擇理地의 핵심은

「택리지」는 그 구성이 4부분으로 되어 있다.

- (1) 四民總論 (2) 八道總論 (3) 卜居總論
- (4) 總論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분량도 짧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결국 가운데 두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을 이룬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 흥미있고 독창적인 그의 모습은 세계 부분에서 들어 난다.

먼저 첫째 부분 “사민 총론”에서는 우리가 四民이라 부르는 士·農·工·商의 구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끝 에가서 이 책의 목적은 이들 四民 가운데 특히 지배계층인 사대부, 즉 양반계층의 “살 만한 곳”(可居地)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중환이 살고 있던 시대의 형편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분 “팔도 총론”은 북에서부터 차례로 8도의 형세를 설명한 것으로 다른 지리지와 비슷하면서도 그 분량은 오히려 빈약하다. 각 도의 설명에 앞서 이중환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으며 백성은

유순하고 조심성이 있지만 응졸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형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성이 어떻다는 투의 地理的決定論은 그 후의 우리 역사에도 특하면 나오는 말인데, 이미 이중환은 이런 논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아주 위험한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서 그는 8도를 차례로 예들어 각 지방의 역사, 지리, 지세, 기후, 물산, 인물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지역에 따라 “살만한 곳”인지를 판정해 준다. 그보다 1백년을 앞서 살았던 풍수지리설의 대가 南師古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중환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풍수지리의 영향을 들어 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는 瘴氣있는 곳을 꼬집어 내어 살기 나쁜 곳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있기도 하다. 장기가 있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풍토병 또는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말한 셈인데 아직 병균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여진 것이었다.

「택리지」에서 가장 독창적인 제3부 “복거 총론”이란 살기 좋은 곳을 물색하는 방법을 말한 셈인데, 그 구비 조건으로 이중환은 地理, 生利, 人心, 山水의 넷을 들고 있다.

#### ◇살기좋은 곳을 물색하는 방법기술

먼저 그가 지리라고 내세운 부분은 다분히 예로부터 내려온 풍수지리의 이론에 따라 산의 모양과 물의 흐름이 어떤 곳이 살기 좋은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사람은 陽氣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늘은 곧 陽光이므로 하늘이 너무 산으로 가려진 곳에서는 살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했

「택리지」에서 가장 독창적인 제3부 “복거 총론”이란 살기 좋은 곳을 물색하는 방법을 말한 셈인데, 그 구비 조건으로 이중환은 地理, 生利, 人心, 山水의 넷을 들고 있다. 특히 햇빛이 잘드는 곳이 좋다고 했다.

비옥한 땅으로 전라도의 남원·구례, 경상도의 성주·진주 등을 꼽았다. 또 목화가 잘 되는 지방으로 충청도의 황간·영동·옥천·회덕·공주를 들고, 그밖의 특수작물이 잘 되는 곳도 지적했다.

빛이 잘 드는 곳에 살 것을 권한다.

그가 생리라고 강조한 부분은 경제적 조건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우선 생산성이 높을 것과는 다름은 교역이 활발한 곳을 좋은 곳이라 판단했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비옥한 땅으로 전라도의 남원·구례, 경상도의 성주·진주 등을 꼽았다. 또 목화가 잘 되는 지방으로 충청도의 황간·영동·옥천·회덕·공주를 들고, 그 밖의 특수작물이 잘 되는 곳도 지적했다.

#### ◇日本語 및 中國語로도 번역

또 교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수레가, 수레보다는 배가 좋다고도 썼다. 해상무역으로 백만금을 모은 부자들이 서울, 개성, 평양, 안주 등에 있다면 그는 상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선 주장이었다. 그밖에도 8도의 인심에 대한 논평이 있고, 산수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지형과 우리 역사 및 민족성과의 관계가 조명된다.

이중환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동국산수록」, 「팔역지」, 「팔도가거지」등 갖가지 이름 아래 이 책은 아주 넓은 독자층을 얻게 되었다.

1881년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일도 있고, 그것을 대본으로 중국어 번역이 나오기도 했다. 이중환은 인간이 살고있는 지리적 조건이 얼마나 그의 정치, 경제, 심리적 생활에 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 애쓴 인문지리학자였고 환경학자였다.

☞